

## 한미동맹 70년의 가치, 인문학으로 조명한다

- 워싱턴D.C.(6. 26.~27.), LA(6. 29.~30.)에서 인문 강연과 역사 탐방 진행
- 문학·역사·콘텐츠·한국학 전문가들이 한미동맹·문화교류 의미 조명
-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, 양국 MZ세대 대상 문화동맹의 가치 확산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한국도서관협회(회장 남영준), 미국 의회도서관, LA 공공도서관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.C.(6. 26.~27.)와 LA(6. 29.~30.)에서 ‘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’을 개최한다.

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문화동맹으로 확장된 한미 양국의 동맹과 교류의 가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. 의회도서관의 참전용사구술사업(VHP, Veterans History Project)에 참여하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,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MZ세대 학생 등을 초청해 한미동맹과 양국 문화교류의 역사,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조명하는 인문학 강연과 양국 교류의 역사가 스며있는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.

### ‘선교사, 시, 한국전쟁, K-컬처, 영화’ 주제 인문학 강연으로 양국 관계 조명

워싱턴 D.C.에서는 6월 26일(월)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도서관에서 참석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. ▲ 로어노크대 역사학과 스텔라 쉬(Stella Xu) 교수가 ‘선교사들의 발자취를 통해 보는 한미동맹 흔적’을 주제로 미국인 선교사이자 한국학 연구자인 제임스 게일(James Scarth Gale)이 소장했던 한국자료를 통해 한미관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, ▲ 정재찬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‘총, 꽃, 시-시로 읽는 평화와 번영의 역사’를 주제로 한국전쟁 이후 역사 흐름을 전쟁 당시 발간된 시를 통해 재해석한다. ▲ 오웬 로저스(Owen Rogers), 메건 해리스(Megan Harris) 의회도서관 참전용사구술사업 전문가들은 ‘인문학 관점으로 본 참전용사구술사업 컬렉션과 한국전쟁의 역사’를 주제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증언과 인터뷰

등 아카이빙 자료를 통해 양국 MZ세대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한다.

LA에서는 6월 29일(목) 오후 3시부터 LA 공공도서관에서 참석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. ▲ 이남희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이 ‘미국 내 한국학 발전과 한미동맹’을 주제로 미국 내 K-컬처 현황과 현재 한미 양국 관계를 조명하고, ▲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‘영화로 만난 한국과 미국, 그리고 메타버스’를 주제로 한미 합작 영화 제작 경험과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콘텐츠 세상에서의 한미 문화교류 방향을 고찰한다. ▲ 전후석(Joseph Juhn) 영화감독은 ‘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힘과 서사’를 주제로 다룬다.

### 한국전쟁 참전용사, 양국 MZ세대가 함께 한미동맹의 역사·문화적 장소 탐방

아울러 인문학 강연에 참석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, 한미 MZ세대 등 약 30명은 한미동맹의 역사적,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도 찾아간다.

▲ 워싱턴D.C.에서는 6월 27일(화), 주미대한제국공사관,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등을, ▲ LA에서는 6월 30일(금), 흥사단소 터,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등을 탐방해 역사 속에서 양국 국민이 쌓아온 상호 이해와 우정을 나눈다.

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“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정을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한미동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를 계기로 문화동맹으로 확장됐다. 두 나라 국민이 문화교류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조망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#### 붙임 1. 행사 포스터

#### 2. ‘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’ 개최 계획

담당 부서 <총괄>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정현 (044-203-2511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명 (044-203-2556)
담당 부서 <주관 기관>	한국도서관협회 인문사업팀	책임자	본부장	박현우 (02-535-4868)
		담당자	팀장	손지혜 (02-535-4481)

국민과 함께하는  
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

대한민국  
지정책브리핑



도서관  
관 회의 인문학

Reflections on the  
**U.S.-ROK ALLIANCE**  
in the Humanities

시간을 초월한 한미동맹의  
인문학적 조명

70<sup>th</sup> Anniversary of  
the Korea-U.S. Alliance Conference  
미국 의회도서관  
2023. 6. 26. - 27.

6월 26일 월요일 9:30~15:20 (1일차)

- <Session1> 신교사들의 발자취를 통해 보는 한미동맹 흔적  
: 스켈라 위(Sheila Xi) (코어노크대 역사학과 교수)
- <Session2> 인문학적 관점으로 본 VHP 정책성과 한국전쟁의 역사  
: 오웬 로저스(Owen Rogers), 메건 헤리스(Megan Harris) (의회도서관 VHP Specialist)
- <Session3> 총 글 시 - 시로 읽는 평화와 번영의 역사  
: 장재현 (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)
- <Session4>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힘과 서사  
: 전후석 (연희대학교)

6월 27일 화요일 9:00~15:30 (2일차)

- 미국의회도서관 제퍼슨빌딩 투어  
: VHP 컬렉션, 아시아의 한국관련 소장자료 관람
- 주미대한제국공사관
-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

문화체육관광부 LIBRARY OF CONGRESS 한국도서관 협회

미 의회도서관

도서관  
관 회의 인문학

Reflections on the  
**U.S.-ROK ALLIANCE**  
in the Humanities

시간을 초월한 한미동맹의  
인문학적 조명

70<sup>th</sup> Anniversary of  
the Korea-U.S. Alliance Conference  
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 
2023. 6. 29. - 30.

6월 29일 목요일 15:00~17:30 (1일차)

소개

- <Session1> 미국 내 한국학 발전과 한미동맹  
: 이남희 (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)
- <Session2> 영화로 만난 한국과 미국, 그리고 메타버스  
: 이승무 (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)
- <Session3>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힘과 서사  
: 전후석 (연희대학교)

6월 30일 금요일 9:30~12:00 (2일차)

- 로스앤젤레스 풍사당소
- 대한인국민회 기념관
- 로즈메일 공원묘지

문화체육관광부 LOS ANGELES PUBLIC LIBRARY 한국도서관 협회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

LA공공도서관

□ **사업 개요**

- (목적) 인문·문화적인 관점으로 한미동맹과 교류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
- (일시) ▲(워싱턴D.C.) 6. 26.(월)~27.(화) ▲(LA) 6. 29.(목)~30.(금)
- (장소) 워싱턴D.C. 의회도서관, LA 공공도서관, 현지 역사유적지 등
- (주최/주관) 문화체육관광부/한국도서관협회, 미 의회도서관, LA공공도서관
- (주요 참석자) 미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, 한미 MZ세대 등

□ **세부 운영 계획**

- (사업 내용) 한미동맹·문화교류의 역사·현재·미래 조명 강연, 유적 탐방 등
- (주요 프로그램 운영 계획) 지역별 2일간 개최(1일차 강연, 2일차 탐방)

장소	연사	주요 내용
<b>워싱턴D.C.</b> (의회도서관 및 역사유적지) (6.26~27)	스텔라 쉬(Stella Xu) (로어노크대 역사학과 교수)	<b>(선교사들의 발자취를 통해 보는 한미동맹 흔적)</b> 미국인 선교사, 한국학 연구자 제임스 게일이 소장했던 한국자료를 통해 한미관계 의미 재조명
	정재찬 (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)	<b>(총, 꽃, 시-시로 읽는 평화와 번영의 역사)</b> 한국전쟁 이후 역사 흐름을 전쟁 당시 발간된 시를 통해 해석
	오웬 로저스(Owen Rogers), 메건 해리스(Megan Harris) (의회도서관 VHP Specialist)	<b>(인문학 관점으로 본 VHP컬렉션과 한국전쟁의 역사)</b> 한국전쟁 참전용사 증언과 인터뷰 등 아카이빙 자료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공감대 형성
	전후석 (영화 감독)	<b>(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힘과 서사)</b>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탕으로 재외국민의 정체성 조명
<b>로스앤젤레스</b> (LA공공도서관 및 역사유적지) (6.29~30)	이남희 (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)	<b>(미국 내 한국학 발전과 한미동맹)</b> 미국 내 한국 문화 현황과 현재 한국-미국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
	이승무 (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)	<b>(영화로 만난 한국과 미국, 그리고 메타버스)</b> 미국 합작영화 제작 경험과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콘텐츠 세상에서의 문화교류에 대해 나눔
	전후석 (영화 감독)	<b>(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힘과 서사)</b>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탕으로 재외국민의 정체성 조명

사진	성명	주요 이력
	스텔라 쉬 (Stella Xu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시아계 미국인. 로어노크대학 역사학과 교수</li> <li>○ (주요저술) Reconstructing Ancient Korean History: The Formation of Korean-ness in the Shadow of History</li> <li>○ UCLA 역사학 박사. 로어노크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가르치며, 한국사와 한국-중국-미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활동 다수</li> </ul>
	오웬 로저스 (Owen Rog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회도서관 Veterans History Project(VHP) 담당</li> </ul>
	메건 해리스 (Megan Harri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회도서관 Veterans History Project(VHP) 담당</li> </ul>
	전후석 (Joseph Juh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미교포 영화감독(뉴욕주 변호사 출신)</li> <li>○ (주요작품/저술) 헤로니모('19), 초선(CHOSEN)('22)/당신의 수식어('21)</li> <li>○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미국에서 영화와 법학 전공. 미국·쿠바·중국·멕시코 등의 재외국민을 만나고 그들이 겪은 정체성 관련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</li> </ul>
	이남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미교포. UCLA 역사학과 교수/ UCLA 한국학연구소* 소장</li> <li>*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한국학연구소</li> <li>○ 시카고대 역사학(한국사) 석·박사. 한국문화, 역사를 주제로 하는 한-미 문화교류·연구 활동 지속 중</li> </ul>
	정재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/ 사범대학장</li> <li>○ (주요저술) 그대를 듣는다('17), 시를 잊은 그대에게('17),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것들('20) 등 다수</li> <li>○ 품격 있는 문학 해설, 방송 출연, 인문 강연회 등을 통해 대중을 위로하고 감동시키는 문학평론가</li> </ul>
	이승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(영화과) 교수</li> <li>○ (주요작품) 위리어스 웨이('10), 붉은바람('18), 레드아이즈('22) 등</li> <li>○ 미국 뉴욕대 영화과 석박사, 한국 최초 할리우드 자본으로 합작 영화(위리어스 웨이)를 제작</li> </ul>